

# 白野戰戰鬪司令部 作戰과 敎訓

鄭 錫 均

(전 국방군사연구소 선양사업부장)

1. 서 론
2. 본 론
3. 작전경과 및 분석
4. 작전교훈
5. 결 론

## 1. 서 론

6·25전쟁 기간 중 1951년도에 후방지역인 지리산을 비롯한 산악지역에서 북한군 패잔병과 지방공비의 수가 3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강력한 세력으로 조직되어 후방주민과 병참선에 큰 위협을 주고 있었다.

육군은 1950년 후반부터 1951년 후반까지 후방지역 상황에 따라 전투부대를 축차적으로 투입, 후방지역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상당수의 공비를 토벌하였으나 그들의 유격활동은 그치지 않고 계속 되었으며 1951년도 말경에는 더욱 극심해져 정부차원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 시기에 백야전전투사령부가 창설되어 성공적인 공비토벌 작전으로 이들을 단시일 내에 소탕하고 후방지역을 안정시켰다.

이 작전은 대전 이남의 주요 고지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리산-덕유산 일대에 대한 작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성공적인 게릴라 소탕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세밀히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즉 미 제8군사령부와 육군본부는 어떠한 작전지침을 주었고, 백야전전투사령부는 어떠한 작전계획을 하달하였는가? 대부분 고도 1,000미터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영하의 혹독한 추위속에 대규모의 공비들을 어떻게 소탕할 수 있었는가? 공비들이 험악한 산악의 여러 곳에 집결 또는 분산된 상태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없이 어떻게 공비들만 소탕할 수 있었는가? 공비들은 철저한 훈련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뭉쳐진 조직이고 지형에 능숙한 집단인 데 어떻게 짧은 기간에 격멸이 가능했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백야전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을 분석하여 장차 예상되는 대게릴라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교훈을 분석해 내는 노력은 큰 의의가 있다고 사려된다.

## 2. 분 론

### (1) 백야전사 설치의 필요성

1951년 당시 후방지역 상황은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낙동강 지역 일대에 집중배치 되었던 북한군의 주력의 퇴로가 차단되어 정상적인 지연전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아군의 전과확대 및 추격작전으로 지휘체계가 마비된 상태에서 소수집단별로 철수하면서 일부는 깊은 산중으로 은신하고, 일부는 오대산 등 백두대간을 따라 월북하였다. 남한에 잔류한 패잔병은

원래 지방 빨치산과 지리산-덕유산 일대에서 합류, 세력을 크게 형성하여 유격전으로 후방지역에서 아군의 병참선을 위협하고 지역을 교란하였다. 그 활동인원은 지방 빨치산과 인공(人共)치하에서 부역하다가 입산한 인원까지 총 3만명에서 4만명으로 추산되었다.

특히 남한 빨치산 두목 이현상(李鉉相)이 이끄는 소위 남부군<sup>1)</sup>으로 호칭하던 세력은 예하에 소규모의 몇 개 사단을 둘 정도로 병력도 많았고 정규군 출신의 패잔병들은 원래 그들의 중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북한으로부터 통신을 직접 접수하고 있었다.

군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 무장공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3개 사단(제11사단, 제8사단, 제2사단)을 투입,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공비를 소탕하였으나 이들은 1951년 6월이 되면서부터 다시 흩어져 있던 병력을 수습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 그해 8월에는 남한 공비의 총책(總責) 이현상이 지리산 북쪽 논골(남원군 산내면)에서 제2차 6개 도당(道黨)회의(전남북, 경남북, 충남북)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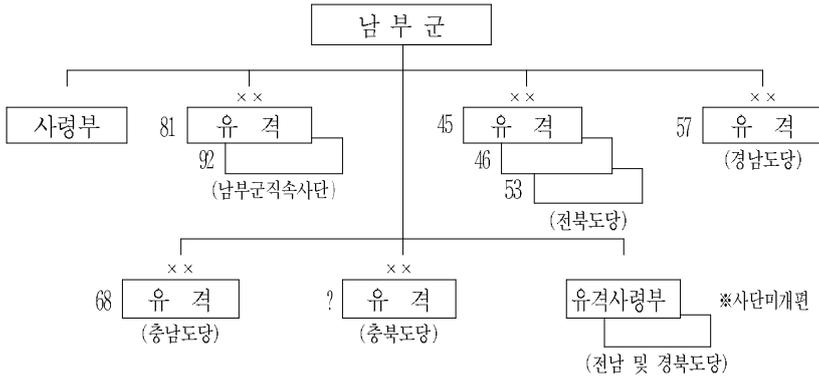
그는 이 회의를 통하여 각 도당 유격사령부를 사단으로 승격, 개편하고 이를 그가 직접 지휘하는 남부군사령부(南部軍司令部) 통제하에 들게 함으로서 지휘체계의 단일화를 이루었다. 이때가 남부군의 전성기였으며 그 편성은 <표 1>과 같다.<sup>2)</sup>

1) 남부군은 전쟁전 지리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제2병단의 개편부대이다. 이 부대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지리산지구와 호남일대에서 준동하던 제2병단(병단장 이현상)이었으며 전쟁발발후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남하하자 정규전에도 참여하였다. 이들은 전세의 역전으로 태백산맥을 타고 월북하여 강원도 평강북쪽 후평리에서 이승엽(당시 조선인민유격대 총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독립 제4지대”로 재편성한 후 남하하였으며 12월말경에는 충북 단양으로 진출하였다. 다음해 1월 3일 이들은 문경, 제천, 단양, 영천을 전전한 후에 문경을 경유 2월초에 속리산에 집결하였다. 이 무렵 “독립 제4지대”는 “남반부 인민유격대”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다시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으로 개칭함으로써 이때부터 이 부대를 “남부군”이라고 불렀으며 사령관은 이현상이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232쪽.

2) 위의 책, 184쪽.

<표 1> 남부군 편성표(1951. 8)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남부군은 약 2만여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들은 경부가도(京釜街道) 등 주요 병참선과 경부선, 전라선 철도 등에 매복 및 기습을 감행하여 최전선으로 추진되는 각종 보급품과 장비 등을 탈취하고 대규모 부대단위로 행동하면서 후방을 교란,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식량과 가축, 피복 등을 약탈해 감으로써 후방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실로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었다.

이렇게 되자 국회에서는 후방 치안확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가 결하여 정부에 건의하자 이대통령은 벤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에게 이를 요청하여 후방지역 공비토벌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다음은 당시 제1군단장으로 동부전선을 담당했던 백선엽(白善燁) 장군의 회고내용을 알아본다.<sup>3)</sup>

“1951년 11월 중순 토의의 내용은 지리산 일대의 공비소탕이었다. 벤 플리트는 나에게 ‘백 장군이 대게릴라전의 경험이 많다하니 이 작전을 맡아 주어야겠다. 작전에 차출될 병력은 2개 사단이다. 어느 사단을 선정할지는 귀관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3) 백선엽, 『길고 긴 여름 1950년 6월 25일』, 2000, 228쪽.

벤 플리트는 이어 지도를 펴놓고 작전의 내용을 설명했다.

- 대전이남지역은 작전 기간 중 한국 정부에서 계엄을 선포한다.
- 1개 사단은 해상기동으로 여수에 상륙해 남에서 북으로, 1개 사단은 육로로 대전 쪽으로 내려가 북에서 남으로 각각 지리산을 포위, 공격한다.
- 한국 공군은 지상부대를 직접 지원한다.
- 작전의 세부계획은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와 협조를 받아 수립한다.
- 미8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미 극동군 사령부는 방송, 전단살포 등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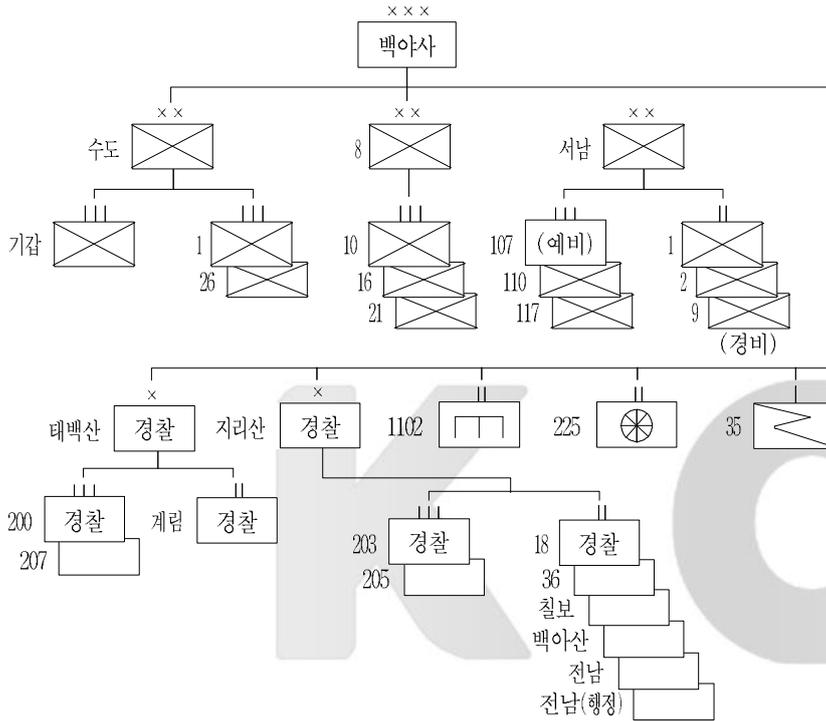
그 후 백선엽장군은 1951년 11월 16일 지리산 일대의 공비를 소탕하는 토벌군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공비토벌부대 명칭은 미8군의 작전명령서에 따라 백(白)야전전투사령부(Task Force Paik)로 결정되었다. 작전명칭은 쥐잡이(Operation Rat Killer)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작전부대로서 2개 사단은 동부지역의 수도사단과 중동부지역의 제8사단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양개사단은 전선임무를 타사단에 인계하고 이동을 개시하였다. 즉 수도사단은 속초에서 제11사단에 책임지역을 인계하고 해군 LST편으로 해로를 따라 여수에 상륙, 북상하고 국군 제8사단 역시 양구 북방 편치불에서 제7사단에 책임지역을 인계하고 차량편으로 대전을 거쳐 지리산 북쪽에서 남하하여 지리산을 크게 포위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정립하였다.

## (2) 백야전사 전투편성

육군본부 작전지시(제113호)에 의거 백야전사령부는 대구에서 200여명으로 사령부요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참모는 참모장에 김점곤 대령, 작전참모 공국진 대령, 정보참모 유양수 대령, 군수참모 장우주 중령으로 편성하고 육군본부 작전과장 정래혁 중령과 협의해 부대 임시편성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 등 제반사항을 조치받았다.

그리고 11월 25일 대구(大邱)에서 전주(全州)로 이동하여 1951년 11월 26일부로 서남(西南)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金容培 준장)로부터 서남지구 공비토벌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서남지구전투사령부와 여기에 배속되었던 모든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또한 주요 전투부대인 수도사단은 11월 28일 21:00부로, 제8사단은 11월 27일 12:00부로 그리고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종전 중부지구경비사령부)와 경찰부대는 이보다 앞서 11월 26일부로 백야전투사령부에 배속되었다. 백야전사 전투편성과 지휘관 인적사항은 <표 2, 3>과 같다.<sup>4)</sup>

<표 2> 백야전 전투사 전투 편성표(1951. 11. 25)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87쪽.

<표 3> 지휘관 인적사항

구 분	부 대	지 휘 관	비 고
백야전전투사령부	사 령 관	소장 백선엽	참모장:김집곤
수 도 사 단	사 단 장	준장 송요찬	
	기갑연대장	대령 이 룡	
	제 1 대대장	소령 이봉식	
	제 2 대대장	소령 박우균	
	제 3 대대장	대위 박명경	후임:대위 한석기
	제 1 연대장	중령 박춘식	
	제 1 대대장	소령 윤종호	후임:소령 함용익
	제 2 대대장	소령 이종득	
	제 3 대대장	소령 박로웅	후임:소령 김승길
	제26연대장	대령 이동화	
	제 1 대대장	소령 차문석	
	제 2 대대장	소령 박기순	
제 3 대대장	소령 우교봉		
제 8 사 단	사 단 장	준장 최영희	
	제10연대장	대령 정 강	
	제 1 대대장	소령 차만석	
	제 2 대대장	소령 이기만	
	제 3 대대장	소령 임병근	
	제16연대장	대령 이준일	
	제 1 대대장	소령 이정호	
	제 2 대대장	소령 한병갑	
	제 3 대대장	소령 정순기	
	제21연대장	대령 전부일	
	제 1 대대장	소령 김광철	
	제 2 대대장	소령 김동희	
제 3 대대장	소령 임창모		
서남지구전투 사령부	사 령 관	준장 김용배	
	제107예비연대장	중령 김혜일	
	제110예비연대장	중령 김재명	
	제117예비연대장	중령 노영목	
	제 1 경비대대장	중령 유근춘	후임:대위 이종익
	제 2 경비대대장	소령 김상홍	후임:중령 하정환
제 9 경비대대장	소령 차동준		

구 분	부 대	지 휘 관	비 고
치 안 국	남원치안국전방사령부	경무관 최치환	치안국장대리
태백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	사 령 관	경무관 이성우	
	제200경찰연대장	총경 이동순	
	제207경찰연대장	총경 문학동	
	계림경찰대대장	경감(임시)서태환	
지리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	사 령 관	경무관 신상목	
	제203경찰연대장	총경 조석원	
	제205경찰연대장	총경 김원용	
	제18경찰대대장	경감 차일혁	후임:경감 이병선
	제36경찰대대장	경감 김석완	
	칠보경찰대대장	경감 이학희	후임:경감 최송기
기 타	백야산경찰대대장	경감 김등진	후임:경감 김기주
	전남전투경찰대대장	경감 주재선	후임:경감 주형래
	전남(행정)경찰대대장	경감 민병찬	
	제1102야전공병대대장	중령 박정제	
	제225자동차수송대대장	소령 김 홍	
	제35야전통신중대장	대위 한철등	
계	사단급이상부대: 3		
	전투경찰연대: 4		
	전투경찰대: 7		
	지원부대: 3		

대전 이남에는 공비소탕을 위해 1951년 12월 1일 계엄령이 하달되었으며 백야전전투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인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의 대행관으로서 행정기관 및 경찰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 강릉에 배치되었던 한국 공군의 무스탕 전투기 편대들도 진해기지를 거쳐 사전비행장에 이동배치되어 대지공격지원 준비를 마쳤다. 포로수용소도 남원 외곽과 광주에 설치하였으며 미8군이 보유한 여분의 통신장비도 각 예하부대에 지급되었다.<sup>5)</sup>

5) 백선엽, 앞의 책, 231쪽.

### (3) 육군본부 작전계획(요지)

#### 육군본부 작전계획 요지<sup>6)</sup>

##### 1. 백야전전투사령부

가.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다음 4단계로 구분하여 작전을 수행하라.

- (1) 제1기작전: 공비들의 강력한 거점인 지리산 지구에 전 부대로 공격을 감행하라. 작전완료 일정은 12월 10일로 예정한다.
- (2) 제2기작전: 2개 지역에서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며 일부부대는 전 북지역의 강력한 공비거점에, 다른 일부부대는 경남지역내 공비거점에 각각 투입하라. 작전완료 일정은 12월 30일로 예정한다.
- (3) 제3기작전: 제1, 제2기 작전지역에 대한 재수색으로 잔적을 격멸하라. 작전의 완료일정은 1월 10일로 예정한다.
- (4) 제4기작전: 일부부대로 하여금 공비가 침투한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공비를 격멸하도록 조치하라.

나. 각 부대는 항시 어떤 지역에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의명 전방지역으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2. 서남지구 전투사령관은 현 담당지구의 작전지휘권을 백야전전투사령관에게 인계하고 그의 지휘하에 들어가라.

##### 3.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풍기-상주, 충주-상주 선을 차단하라.

나. 의명 24시간내 백야전전투사령부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 4. 치안국장

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충주-대전-전주 선과 천안-강경 선을 차단하라.

나. 의명 24시간내 백야전전투사령부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6)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6호(1951.11.16), 육군본부, 「공비연혁」, 1971, 361쪽.

### 5. 협조지시

- 가. 작전은 엄격한 통제하에 기동타격부대와 저지부대 그리고 거점수비대로 구분 실시하되, 기동타격부대는 주력을 포착 격멸하는 데 사용하고, 저지부대는 충분한 중심을 두고 배치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 저지하면서 기동타격부대를 지원하라.
- 나. 각 지구 공비의 거점이 괴멸되면 기동타격부대는 분산된 잔적을 격멸하기 위하여 기동력을 활용, 타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할 준비를 하라.
- 다. 각 단계별 작전에 있어서 저지부대는 기동타격대를 신속히 후속하여 공비의 재편성을 방지하라.

이상과 같이 육본 작전계획이 하달됨에 따라 백야전전투사령부는 수도사단과 제8사단의 6개 보병연대를 기동타격부대로 임무를 부여하고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된 경비부대와 예비연대 그리고 경찰부대를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백야전전투사령부는 작전계획 제1호(1951.11.20)를 하달함으로써 호남지역 공비토벌작전이 전개되게 되었다. 백야전전투사는 작전을 1951년 12월 2일부터 1952년 3월 14일까지 4단계로 나누어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하였다.

## 3. 작전경과 및 분석

### (1) 제1기 작전(1951. 12. 2~12. 14)

#### 1) 작전계획

백야전전투사령부는 육군본부 지침에 따라 먼저 수도사단을 지리산 남쪽

에, 제8사단을 지리산 북쪽에 각각 배치하여 지리산 지역을 크게 포위한 다음 이들 부대를 기동타격부대로, 그 밖의 부대를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대로 하여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공비의 근거지를 일거에 분쇄하고 아울러 반복수색으로 그 잔당을 색출, 격멸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목표지역의 중추지역을 점령하기로 한 5일간을 전반기 작전으로, 지역내 반복수색을 하는 기간을 후반기작전으로 구분하였다. 백야전전투사령부가 하달한 작전계획 제1호(1951.11.20)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백야전전투사령부 작전계획의 요지<sup>7)</sup>

1. 백야전전투사령부는 수도사단·제8사단과 서남지구 전투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서남지구에서 출몰하는 공비를 섬멸하려 한다.
2. 수도사단-배속: 제117예비연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 제203경찰연대 제3대대
  - 가. D-1일 06:00까지 최종 집결지에 은밀히 집결,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고 D+5일까지 목표 "B"(지리산 남쪽)를 점령하라.
  - 나. 배속된 저지부대를 사용하여 지정된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분산 도주하는 공비를 포착, 격멸하라.
3. 제8사단-배속: 제110예비연대, 제107예비연대
  - 가. D-1일 06:00까지 최종 집결지에 은밀히 집결하여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고 D+5일 이전에 목표 "A"(지리산 북쪽)를 점령하라.
  - 나. 배속부대를 사용하여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분산 도주하는 공비들을 포착, 격멸하라.
4. 서남지구전투부대
  - 가. 저지부대로 편성된 일부부대를 수도 및 제8사단장이 선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고 그 지휘권을 이양하라.
  - 나. 회문산 지구에서 현재 작전중인 경찰 2개 대대를 저지진지 "R"에 배치하여 북상이 예상되는 공비를 저지하라.
  - 다. 예하부대를 재배치하여 거점수비에 임하도록 하라.

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3쪽.

5. 수도 및 제8사단의 기동타격부대는 각 담당지역내의 공비를 포위, 격멸한 연후에 분산된 공비를 각개격파하라.
6. 작전지역내에서의 민간인 통행을 통제하며 경찰대의 활동을 강화하여 적정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라.
7. D일 H시는 12월 2일 06:00로 예정하되 후달한다.
8.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전술지휘소는 진주에 위치하며 작전중 전방지휘소는 남원에 설치한다. 각 부대는 다음과 같이 지휘소를 설치하라.
  - 수도사단: 순천(D일 H시 이후 구례)
  - 제8사단: 진주(작전중 전방지휘소: 남원)
  -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남원

백야전사의 작전명령이 하달되자 정부에서는 1951년 12월 1일에 서남지구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토벌작전을 공포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담당관을 남원 백야사전투사령부에 파견하여 작전지원협의체를 구성,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협조 및 지원하였다.

## 2) 작전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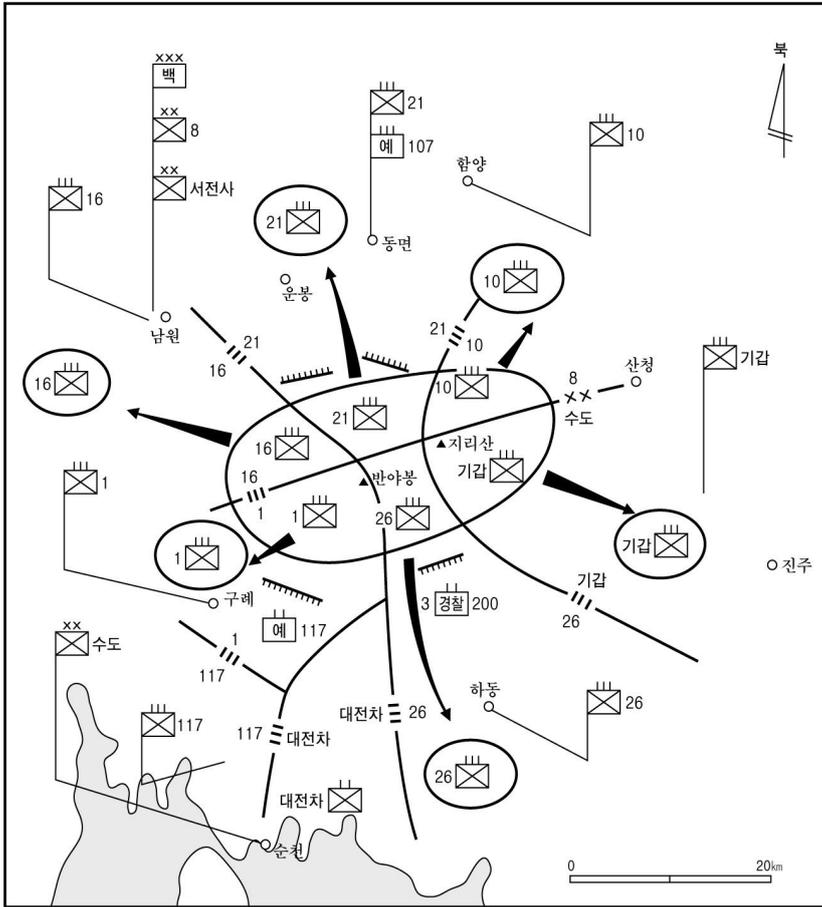
수도사단<sup>8)</sup>: 수도사단은 전 부대가 여수와 마산에 상륙한 후 예하 3개 연대가 원지동(기갑연대), 하동(제26연대), 구례·광양(제1연대)에 집결하였다. 수도사단장은 작전개시일까지 통제선 “A” 외곽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비들을 구축하여 목표지역내로 몰아넣은 다음 이를 격멸할 작전개념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각 연대에게 12월 1일(D-1일)중에 최초 통제선인 “A”지역까지 진출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12월 2일 06:00, 수도사단은 제1연대를 서, 기갑연대를 동 제26연대를 중앙으로 한 3개 연대 병진으로 목표 “B”지대내의 공비를 포획, 섬멸하기 위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4-197쪽.



다음날 기갑연대는 통제선 “B”와 “C” 사이에서 공비의 은거지 색출에 주력하였으며, 제26연대는 목계리(청암면)-운수리(화개면)로 진격하다가 등촌리에서 공비를 추격하였다. 제1연대는 불당마을 동쪽에서 공비 300여 명과 조우하여 교전하였으나 공비들은 4명의 시체를 유기한 채 도주하였다. 그

<요도 2> 제1기 후반기 작전요도(1951. 12. 7~15)



자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197쪽.

리고, 배속부대인 제117예비연대 수색대는 이날 차단진지에서 공비 7명을 사살하였다. 이어서 4일과 5일 통제선 “B”와 “C”, “C”와 “D” 일대에 대한 공격이 전개되었다. 이 전투에서 기갑연대는 거림-세석, 법계사-1398고지로 진출하였고, 2일간의 전투에서 사살 34명, 생포 510명의 전과를 올렸다. 사단의 중앙에 배치된 제26연대는 산청 및 하동 군계와 도계(전남과 경남)를 따라 수색작전을 전개하면서, 대성리(화개면)로 진출하는 동안에 공비사살 72명, 생포 79명, 화기노획 30정과 백미 72가마를 노획하였다. 한편, 사단에 배속된 각 부대도 작전계획에 따라 행동하면서 기동타격부대의 작전을 지원하였다. 수도사단은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에 걸친 목표 “B”지역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7일부터 백야전전투사령부 작전지시 제3호(1951.12.4)에 의거하여 후반기 작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제1기 후반기 작전은 사단 담당지역인 목표 “B”지역 일대에 대한 반복수색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서 14일까지 계속되었다.<sup>9)</sup>

제2기 작전을 위하여 기갑연대는 순천에, 제26연대는 구례구에, 제1연대는 구례에 각각 집결하였다. 한편, 배속부대 중 제200경찰연대 제1대대와 제117예비연대가 사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었다.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이들 부대들로 하여금 천왕봉-반야봉-노고단 등의 작전지역에서 잔여공비 소탕작전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제8사단: 제8사단은 춘천에서부터 육로로 이동하여 사단 전술지휘소를 전주에 설치하였으며, 예하 3개 연대는 함양(제10연대), 남원(제16, 제21연대)에 집결하였다. 12월 1일 제8사단은 백야전전투사령부 작전계획 제1호에 따라 지리산을 남북으로 양분한 북쪽지역인 목표 “A”를 공격하기 위하여 통제선 “A”까지 은밀히 이동하였다. 다음날 06:00 제8사단은 3개 연대 병진-좌에서 우로 제10연대, 제16연대, 제21연대 순으로 전개-으로 수도사단과의 협조 하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년, 196쪽.

공격 초일(12월 2일) 제8사단은 천마산(곡성 동쪽 8km)·650고지(남원 동쪽 7km)·734고지(운봉 남쪽 5km)·덕두산(1,150고지, 동면 남쪽 3km)·왕산(932고지, 산청 서쪽 5km)을 연하는 통제선 “B”를 점령하였다. 사단에 배속되어 저지임무를 수행하게 된 제110예비연대 제2, 제3대대는 사단 기동타격부대의 공격에 호응하여 저지진지 “S”, “T”를, 제107연대 제1, 제2대대는 철마산(함양 동쪽 13km)을 중심으로 한 남북 일대의 저지진지 “U”, “Z”를 각각 점령하여 공비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다음날 제8사단은 통제선 “B”에서 공격을 재개하여 만복대(남원 동쪽 12km)·세골산(1,198고지 운봉 남쪽 7km)·부운리(남원군 동면 남쪽 7km)·문정리(함양군 휴천면)·방곡리(산청군 금서면)·938고지(웅석봉 서쪽 5km)로 진출하여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이어서 4일에는 포위망을 3~5km 압축하였으며, 6일에는 최종목표인 벽소령, 1,248고지(벽소령 동쪽 2km), 1,134고지, 1,806고지(천왕봉 서쪽 2km)를 점령함으로써 제1기 전반기 작전이 종결되었다.

제8사단은 7일부터 제1기 후반기 작전으로 전환하여 목표지역 “A”에 분산 은거중인 공비를 탐색하기 위하여 공격 역순으로 진출하면서 14일까지 반복수색을 계속하였다. 이 제1기 후반기 작전에서 제8사단은 공비 사살 271명, 포로 8명, 은거지 파괴 50개소, 소화기 60정, 박격포 1문, 경기관총 6정을 노획하였다.<sup>10)</sup>

이와 같이 목표지역내 공비의 1차적인 소탕작전을 성공리에 종결지은 제8사단은 백야전전투사령부 작전지시(제3호 1951. 12. 7)에 의거, 사단 전술지휘소를 운봉에서 남원으로 이동시켜 제2기 작전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때, 제16연대는 남원에 제21연대는 동면에, 제10연대는 함양에 각각 집결하여 부대정비에 임하였다. 그리고 사단에 배속된 제110예비연대의 2개 대대는 배속이 해제되어 운봉 북쪽 2km 지점의 호기리(남원군 이백면)로 이동하였고 제107예비연대의 2개 대대는 남원에 집결하였다.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쪽.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1951년 9월 이래로 남원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육군본부 직할부대로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전투사령부에는 3개의 예비연대(제107, 제110, 제117연대)와 2개의 경비대대(제1, 제2대대), 그리고 4개의 경찰연대(제200, 제203, 제205, 제207연대) 및 7개의 경찰대대(제18, 제36, 칠보, 백아산, 전남, 전남(행정), 계림대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찰부대들은 국립경찰의 독자적인 편성인 태백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와 지리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에 소속된 부대들이었다. 치안국은 백야전투사령부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안국 전방사령부를 설치하고 2개의 경찰전투사령부와 경남, 전라남·북의 3개도 경찰국의 공비토벌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전투경찰부대 중의 제200경찰연대와 제207경찰연대 및 계림경찰대대는 태백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에, 제203경찰연대와 제205경찰연대, 6개 경찰대대는 지리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에 예속되어 있었다. 12월 1일,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배속된 제203경찰연대 제1, 제2대대를 순천으로부터 화개장(하동군)으로 진출시켜 저지진지 “R”을 점령토록 하고 잔여부대로 예상되는 공비의 준동에 대비하여 주요지역을 경비하도록 하였다. 부대별 작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 제1경비대대: 전술지휘소 평사리, 섬진강 발전소 경계
- 제2경비대대: 전술지휘소 광주 비행장, 광주 비행장 경비와 나주·월명리(정읍·동북쪽)·영산포 등의 거점 경계
- 제107예비연대 제3대대: 전술지휘소 금산, 금산지역 경계와 퇴로차단
- 제205경찰연대: 전술지휘소 남원, 남원·순창 간에서 공비 퇴로차단
- 제207경찰대대: 전술지휘소 함양, 진안일대 경계
- 제18경찰대대: 전술지휘소 무산, 무산일대 경계
- 제36경찰대대: 전술지휘소 전주, 전주지역 경계
- 칠보경찰대대: 전술지휘소 시산리, 섬진강 발전소 경계와 서쪽지역 퇴로차단

- 백야산경찰대대: 전술지휘소 원동리, 백야산에서 주둔하면서 공비의 재입산을 방지
- 전남경찰대대: 전술지휘소 광주, 광주지역 경계
- 전남(행정)경찰대대: 광주지역 경계

제1기 작전중 백야전사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단살포 320여만매, 지상 방송 연 31시간 비행기(L-19)에 의한 공중방송 연 4시간을 실시하였다.<sup>11)</sup>

백야전사의 제1기작전 보름동안에 공비들은 수천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은거지 파괴, 장비 및 은거시킨 식량을 피탈당하였다. 그리고 살아남은 잔여 공비들은 지리산 일대의 유리한 지형과 은거지를 버리고 토벌부대를 피해 분산, 잠적하였다.

### 3) 작전분석

백야전사의 제1기 작전목표는 지리산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남한 공비의 주력인 남부군을 격멸시키는 것이었다. 이 작전은 작전개시 직전까지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전선에서 정규군 2개 사단을 차출, 해상과 내륙으로 각각 이동시켜 지리산의 주요 고지들을 목표로 남과 북에서 기습적이고 집중적인 병력투입으로 적이 예상치 못했던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즉 남과 북에서 포위하여 압축하는 공격기동 형태였다. 따라서 공비들은 지리산 정상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제1기 후반기 작전은 공격했던 축선을 역으로 내려가면서 반복수색과 정찰로 적을 포착, 격멸하고 은거지를 파괴하는 작전이었다. 따라서 백야전사의 제1기 작전은 기습과 집중의 원칙을 이용하여 초기에 많은 공비를 살상하는 작전성과를 가져왔다. 이는 사전 치밀한 계획과 보안유지 등 군단급 규모의 군 병력과 전투경찰부대를 잘 지휘한 백선엽 사령관의 지휘통솔력을 높이 평가할 수

11) 육군본부, 공비연혁, 1971년, 380쪽.

있으며, 육군본부 및 미고문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이러한 작전성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미 극동군사령부의 심리전 지원활동, 즉 수백만 장의 귀순전단살포, 지상 및 공중에서의 확성기방송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공비들의 전의를 상실케 하여 귀순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데 큰 몫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제1기작전은 작전의 시기를 동계(冬季)로 정함으로써 높은 고지를 활동무대로 하는 공비들이 혹한과 눈으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되고 노출되는 점을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 기습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한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 (2) 제2기 작전(1951. 12. 16~1952. 1. 4)

### 1) 작전계획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제1기 작전이 종료되는 12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지리산일대에 집중 은거하던 공비(남부군이 주축)들은 대부분의 병력을 상실한 데다가 근거지마저 잃게 되자 이들은 교묘히 포위망을 빠져나와 노령산맥의 각 고지를 목표로 분산도주한 후 그 지역 지방공비와 합류하여 재기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중 전북도당의 제45사단과 충남도당의 68사단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운장산(1,126m, 전주 동북쪽)지구의 1,600여명으로 추산되는 병력은 부대를 재편성하였고 노령병단 소속의 제6연대와 제46사단 제407연대와 제408연대는 임실-회문산-장군봉-신선봉 일대에서 합류하여 1,000여명의 병력으로 서해안으로 통하는 거점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남내륙지역에서는 화순·곡성군당의 기간요원과 전남유격총사령부 산하의 분산된 병력 약 1,000여명은 주로 백야산-모후산 일대에 분산, 잠적하여 가급적 토벌부대와와의 접전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비들의 동정을 파악하게 된 백야전전투사령부는 분산된 이들을 근거지별로 각개격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투사령부는 제2기 작

전은 거점을 포위공격하는 전반기 작전(12. 19~28)과 공비의 잔당을 수색 격멸하는 후반기 작전(1951. 12. 30~52. 1. 5)의 2개 단계로 구분하고 수도사단과 제8사단 그리고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로 하여금 지역별로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백야전전투사령부 작전계획 제2호의 요지<sup>12)</sup>

1. 수도사단은 제203경찰연대, 제207경찰연대 및 제18경찰대대를 통합지휘 하여 운장산 지구의 공비를 격멸하라.
2. 제8사단은 제107예비연대와 제1경비대대, 제2경비대대 및 제205경찰연대를 비롯한 4개 경찰대대(제36, 칠보, 백아산, 계림대대)를 통합, 지휘 하여 회문산 지구와 백아산 지구의 공비를 격멸하라.
3.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제110예비연대, 제117예비연대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의 병력으로 지리산 지구로의 재집결을 기도하는 공비를 격멸하라.

이와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한 백야전전투사령부는 제2기의 공격개시 일시를 12월 19일 06:00로 결정하고 새로 배속된 제9경비대대를 수도사단에 재배속하였다. 또한 1102야전공병대대로 하여금 순창, 담양, 갈담, 정읍의 4개소에 경비행기(L-19) 활주로를 건설하게 함으로써 전투지휘 및 지원태세를 강화하였으며 대전에 있던 1302보급중대를 남원의 공병보급소에 병합하였다.<sup>13)</sup>

## 2) 작전실시

제2기 작전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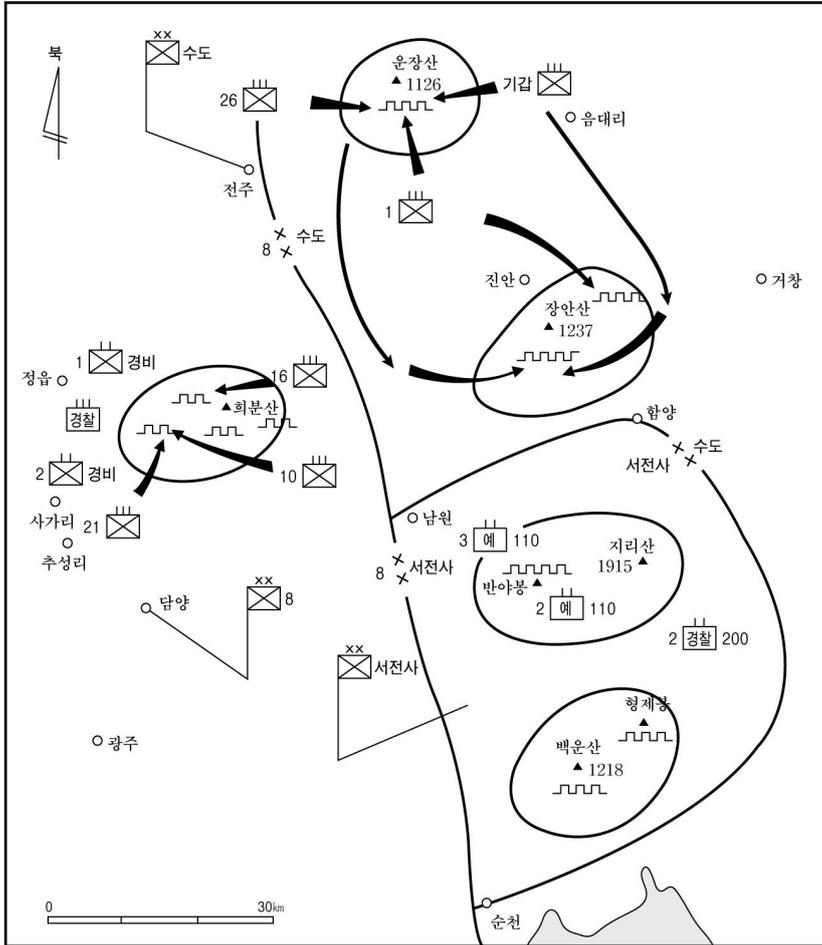
- 분산, 은거하고 있는 공비집단을 근거지별로 각개격파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202쪽.

13) 위의 책, 202쪽.

- 수도사단(+): 운장산지구 공비격멸
- 제8사단(+): 회문산지구와 백아산지구 공비격멸
- 서남지구전투사령부: 지리산지구로 재집결하는 공비격멸

<요도 3> 제2기 전반기 작전 요도(1951. 12. 19~30)



자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204쪽.

수도사단: 전남 구례 부근에 집결해 있던 수도사단은 구례지역을 1951년 12월 15일에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에 인계하고 전주 북동쪽에 있는 운장산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기갑연대를 운장산 동쪽에, 제1연대를 운장산 서쪽인 진안(鎭安)에, 제26연대는 운장산 남쪽 고산에 병력을 전개하여 3개 연대가 포위망을 형성한 후 12월 20일 공격을 개시하여 포위망을 압축해 들어갔다. 그리고 배속된 경비부대와 전투경찰은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였다. 그 결과 수도사단은 제2기 전반기 작전에서 공비사살 478명, 무기노획 114정, 백미 30가마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수도사단의 후기 작전은 12월 31일부터 1952년 1월 4일까지 기갑연대를 무주에, 제1연대를 거창에, 그리고 제26연대를 함양에 각각 배치하여 삼도봉을 목표로 공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제8사단: 제2기 작전간 제8사단은 노령산맥 남서쪽의 회문산, 장군봉, 신선봉, 내장산 일대에 은거중인 공비를 격멸하기 위하여 제10연대를 순창으로, 제16연대는 남원 서쪽 갈담리로, 제21연대는 담양 북쪽 5km지점 추성리로 각각 이동하였으며 경비부대와 경찰병력은 퇴로차단과 종전의 진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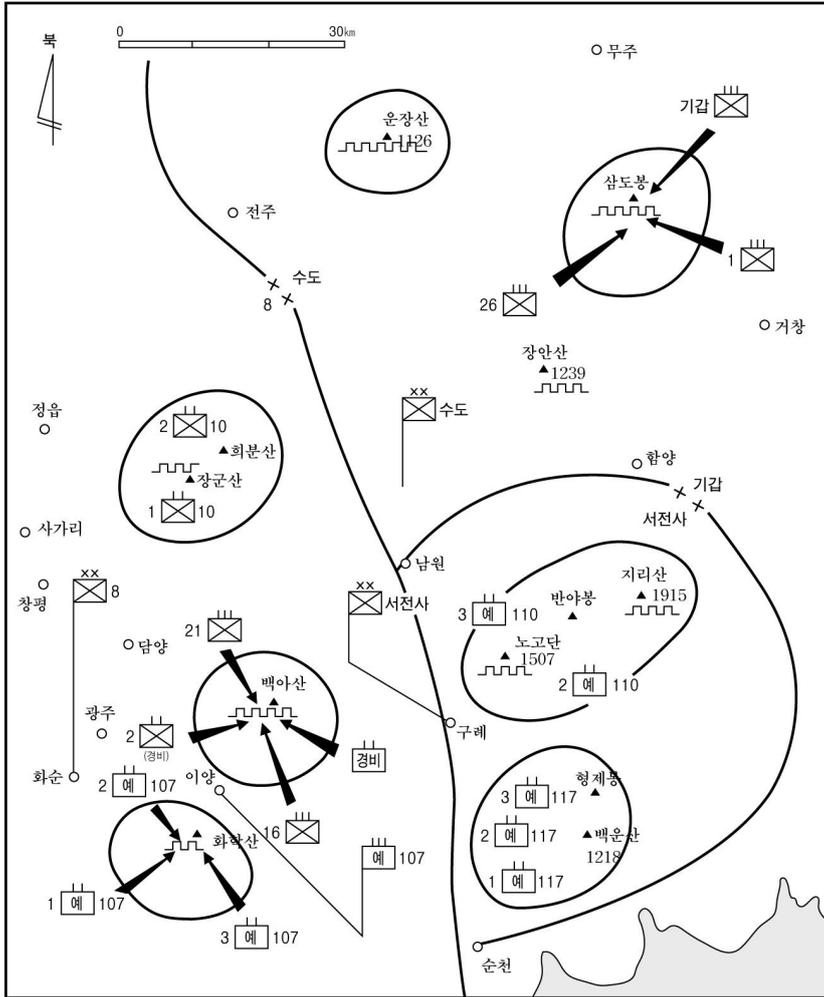
제8사단의 제2기 작전은 수도사단이 목표를 전면포위하고 공비를 압축 격멸하는 방법과는 달리 3개 기동타격대를 회문산에 집중 투입하여 공비들을 서쪽으로 구축하면서 전진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일부 병력을 공비의 도주방향인 서쪽에 매복시켜 도주하는 공비를 격멸하는 것이었다.

제8사단은 12월 19일 06:00에 임실-순창 선에서 9개 대대가 각각 담당지역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주력부대는 회문산 부근의 공비 은거지 20여개소를 파괴하고 공격을 계속하여 내장산, 백양산 지역 일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제2기 후반기 작전은 12월 25일부터 목표로부터 역으로 공격개시선 방향으로 진출하면서 반복 수색을 실시하였다.

제2기 작전기간 중 사단은 공비사살 417명, 포로 851명, 은거지 파괴 313개소, 기타 무기·탄약 다량을 노획하였다.

<요도 4> 제2기 후반기 작전 요도(1951. 12. 31~1952. 1. 4)



자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205쪽.

서남지구전투사령부: 제2기 작전기간 중 서남지구전투사령부는 지리산 지구에서 제110연대, 제117연대, 제200경찰연대를 배속받아 지리산으로 재집결을 기도하던 공비들을 격멸하고 아울러 이들의 주요거점을 수색하였다.

12월 19일 제110연대는 반야봉 부근에서 공비 50명을, 제200경찰연대는 반야봉 남쪽 거림골에서 공비 150명을 격멸하였다. 그 이튿날 제110예비연대 제2대대는 거림골에서 공비 200명과 조우하여 4시간의 교전 끝에 이들을 격멸하였다. 그리고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가 노고단에서 공비 33명을 생포하였다.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는 천왕봉에서 공비 200명을 포착하여 수도사단 제26연대와 합동으로 이들을 격멸하였다.

백야전사는 제2기 작전기간 중 각종전단 537만매를 살포하고 49시간의 선무방송을 실시하여 공비 370여 명이 귀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3) 작전분석

제2기 작전은 제1기 작전으로 지리산 주변고지로 패주한 공비들을 추적하여 거점별 포위기동으로 격멸하거나 또는 공비들을 측방으로 밀어내고 도주방향에 병력을 사전 매복시켜 이들을 격멸하는 방법으로 지형을 많이 이용하였고 적과 조우시는 즉각적인 임기응변으로 병력을 전환하고, 인접부대와 긴밀한 협조하에 합동작전으로 격멸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였다. 또한 공비들이 지리산으로 재집결 하리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서남지구전투사령부 병력을 사전배치 재집결하는 이들을 소탕하였다.

즉 공비를 찾아다니면서 이를 섬멸하고 다시 지리산으로 집결하는 공비를 차단 및 저지부대가 이를 조치한 것으로 적정을 잘 파악하여 적정에 맞는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활동으로 많은 귀순자를 발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3) 제3기 작전(1952. 1. 4~1. 31)

1) 작전계획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제2기 작전이 끝날 무렵 호남지구 남부군사령관 이 현상은 공비들의 지휘체계가 와해되고 대부분의 근거지가 파괴되자 유격활동에 유리한 지리산지구로의 재잠입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비의 활동기도를 확인한 백선엽 사령관은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에 전투부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공비잔당을 격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계획 제3호(1951.12.30)를 하달하였다.

백야전전투사령부 작전계획 제3호의 내용(요지)<sup>14)</sup>

1. 백야전전투사령부는 제1기, 제2기 작전으로 분산 도주한 공비의 잔당을 포획 섬멸하려 한다.
2. 수도사단은 D일 H시를 기하여 지리산, 백운산, 장안산 지역의 공비를 포위 섬멸하라. 단, D+3일까지 제9경비대대, 제203경찰연대, 제18경찰대대의 작전지휘권을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인계하는 대신 지리산 지구에서 작전중인 제110예비연대(-)와 제117예비연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라.
3. 제8사단은 D일 H시를 기하여 회문산-백아산-조계산-화학산 지구에서 공비의 퇴로를 차단하고 이들을 각개격파하라. 단, D+3일까지 제1경비대대, 제2경비대대와 제107예비연대 제36경찰대대, 칠보경찰대대 및 지리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 소속 경찰 부대를 통합 지휘하라.
4.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덕유산, 운장산 지구의 공비를 각개격파하라.
5. D일 H시는 다음과 같다.
  - 수도사단 및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1952년 1월 6일 06:00
  - 제8사단: 1952년 1월 4일 04:00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9쪽.

제3기 작전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전기간은 1952년 1월 1개월로써

- 공비들의 지리산지구 재잠입기도에 대비,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 지역에 전투부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공비잔당 격멸
- 수도사단: 지리산, 백운산 장안산지역 공비포위 섬멸
- 제8사단: 회문산, 백악산, 조계산, 화학산지구 공비퇴로차단 및 각개 격파
- 서남지구전투사령부: 덕유산, 운장산 지구 공비 각개격멸

## 2) 작전실시

수도사단: 송요찬 수도사단장은 사단주력으로 지리산과 백운산을 차례로 포위공격하는 한편 일부부대로 하여금 장안산-천황산 일대에서 출몰하는 공비를 격멸하기 위하여 지리산 지구작전을 전반기로, 백운산지구작전을 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수도사단의 전반기 지리산 지구 전투배치는 다음과 같다.

수도사단의 전투배치 상황<sup>15)</sup>

- 기갑연대: 지리산 동쪽에서 포위망 형성
- 제1연대: 지리산 서쪽에서 포위망형성
- 제26연대: 지리산 북동쪽에서 포위망 형성
- 제207경찰연대: 지리산 북쪽의 청량산, 팔공산, 장안산을 연하는 선에서 퇴로 차단
- 제117예비연대: 광양에서 백운산 지구의 퇴로 차단

제8사단: 최영희 제8사단장은 제3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개 지구에 병력을 전개하였다.

---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10쪽.

제8사단의 전투배치 상황<sup>16)</sup>

- 제10연대(연대 전술지휘소, 순창): 회문산 서쪽에 3개 대대 배치
- 제16연대(연대 전술지휘소, 장성): 신선봉에 3개 대대 배치
- 제21연대(연대 전술지휘소, 옥과): 화학산과 그 동쪽 무명고지에 병력 배치
- 제107예비연대(연대 전술지휘소, 이양): 화학산과 그 동쪽 무명고지에 병력 배치
- 제205경찰연대(연대 전술지휘소, 광천리): 조계산 일대에 병력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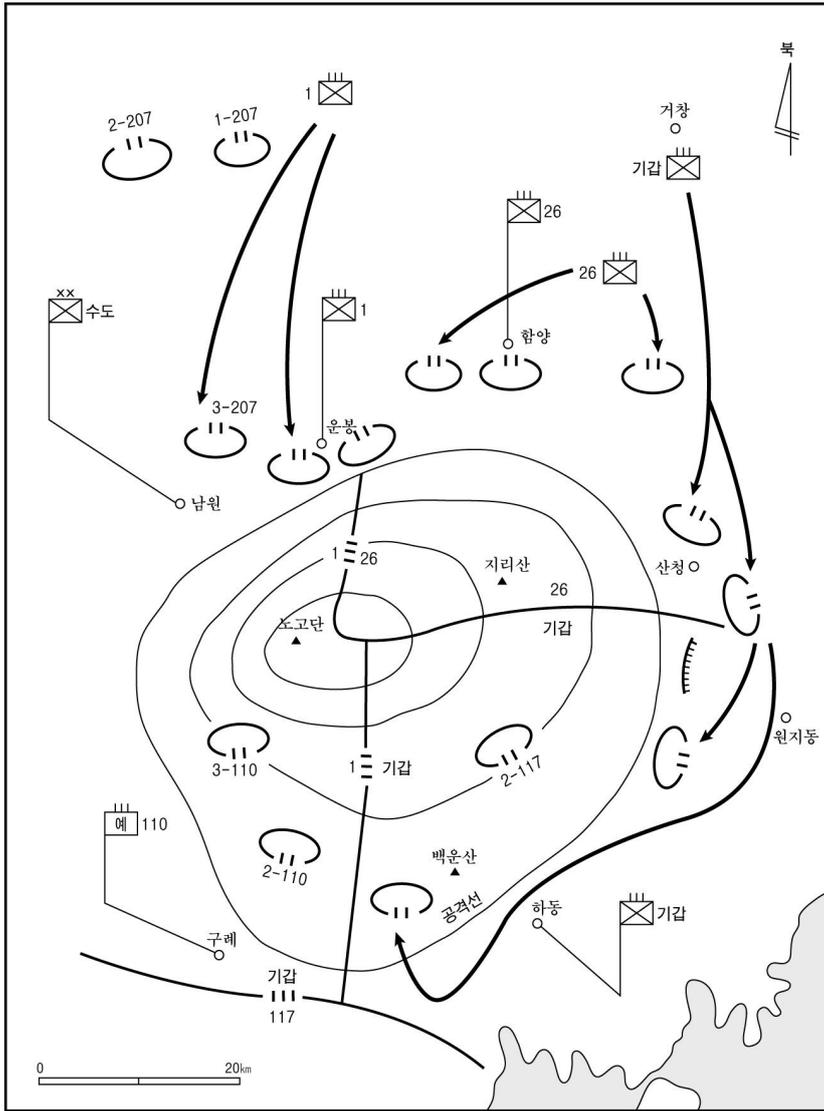
1952년 1월 4일 06:00에 일제히 공격을 감행한 제8사단은 1월 8일까지 5일 동안에 공비사살 71명, 생포 17명, 각종무기 30정을 노획하는 작전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백아산지구 작전을 전개하던 제21연대는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지시로 회문산 지구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제8사단은 1월 10일부터 회문산-신선봉 일대에 3개 연대와 예속부대를 집중투입할 수 있었다. 그 후 제21연대는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로부터 운장산지구 작전임무를 인수하였다. 제8사단은 1월말까지 신선봉, 회문산, 백련산, 성수산, 장안산에서 공비소탕작전을 계속하였다.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제3기 작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전투사령부를 장계 지역에 설치하였다. 같은날 제9경비대대, 제204경찰연대, 제18경찰대대가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었다. 작전지역내의 공비는 제2기 작전중 수도사단과 제8사단에 의하여 타격을 받고 운장산, 덕유산 일대로 분산 도주한 충남도당의 제68사단과 전북도당의 장수군당, 진안군당, 무주군당 그리고 거창, 김천군당 유격대의 잔여병력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간중 각 부대별 작전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13쪽.

<요도 5> 제3기 지리산지역 작전 요도(1952. 1.6~22)



자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미정규전사」, 1988, 211쪽.

제9경비대대는 1월 9일 수도사단에서 서남지구전투사령부로 배속이 변경되자 전술지휘소를 진안으로 이동시킨 후 운장산 지구로부터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그로부터 2일째 되는 11일 12:30에 제9경비대대는 제8사단 21연대로 배속이 전환되었다. 제203경찰연대는 1월 9일 유평리(산청 남서쪽 10km)에 일단 부대를 집결시켰다가 다음날 지휘소를 장계리(장수 북쪽)로 추진 설치하였다. 연대는 3개 대대로 덕유산을 포위한 후 이를 압축하면서 의심나는 지역을 반복수색하였다. 또한 제18전투경찰대대는 1월 8일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무주·영동 간 보급로를 경비하다가 일부병력을 조항산(속리산 북쪽)과 그 서쪽 일대에 추진배치하여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 3) 작전분석

백야전사의 제3기 공비토벌작전은 공비들이 유격활동에 유리한 지리산 부근으로 재집결함에 따라 이들을 포착, 섬멸하는 작전이었다. 따라서 지리산과 주변의 백운산, 회문산, 백아산 등의 공비 거점을 격멸하는 작전으로써 지휘체계가 와해된 공비들이 토벌작전부대에 의해 사살되거나 생포되거나 또는 귀순하였다.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제3기 작전도 치밀한 작전계획에 의거 성공한 작전이었으며 1952년 1월말에는 공비의 수도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상급부대에서는 전선상황을 고려하여 제8사단을 백야전전투사령부에서 배속을 해제하였고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사령부 요원도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 (4) 제4기 작전(1952. 2. 4~3. 14)

백야전전투사령부는 제3기 작전기간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발호하던 공비 집단을 대부분 소탕하였으며 잔여 공비는 소수병력으로 조직이 와해되고

분산되어 있는 상태였다.

제3기 작전을 1952년 1월 31일부로 종료한 백야전전투사령부는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271호(1952. 1. 20)에 의거 제8사단이 전선으로 복귀하고 백야전사령관은 육군본부지시에 의거 제2군단사령부를 춘천 북쪽(신북면, 천전리)에서 창설하기 위하여 백야전사령부요원을 이끌고 전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sup>17)</sup>

따라서 제4기 작전부대는 수도사단과 서남지구전투사령부만 남게 되었으며 백선엽 중장(1952. 1. 12 중장 진급)은 작전지휘권을 송요찬 수도사단장에게 1952년 2월 6일부로 인계하였다.

송요찬 사령관은 최초 백야전전투사령부가 계획한 대로 전남지역의 백아산, 모후산, 조계산 지구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기로 하고 2월 3일 사단 전술지휘소를 남원으로 이동시켰다. 이와 더불어 제1연대는 조계산 북쪽지역에, 제26연대는 조계산 남쪽에 전개하여 2월 4일 06:00에 조계산에 대한 기습적인 공격을 단행하였다. 공격 첫날 양개연대는 남과 북에서 조계산을 포위하여 협공으로 목표를 점령한 후 7일까지 조계산 일대에서 반복수색을 계속하여 다대한 작전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백아산 경찰대대는 백아산 서쪽에 그리고 전남 경찰대대는 모후산에 각각 병력을 배치하여 공비의 탈출로를 차단한 가운데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전술지휘소를 진안에 두고 제110예비연대, 제9경비대대, 제36경찰대대를 배속받아 운장산, 고산에서 공비잔당을 격멸하였다.

그리고 태백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는 지휘소를 함양에 설치하고 제207경찰연대와 제18경찰대대를 배속 받아 덕유산, 장안산, 천황산 지역 일대에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지리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는 제205경찰연대가 주축이 되어 함양, 남원, 구례군, 순천을 연하는 선 동쪽의 지리산, 백운산 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새로 창설된 경찰의 “손”부대(부대장: 손계천 총경)는

17) 백선엽, 앞의 책, 242쪽.

칠보, 계림 양개 경찰대대를 지휘하여 전주, 임실, 남원, 담양, 정읍을 연하는 선에서 회문산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한편, 경남 밀양의 신불산 지역으로 이동하여 소탕작전을 전개한 수도사단의 기갑연대는 2월 15일에 작전임무를 마치고 원대복귀하여 호남지구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도사단이 주축이 된 제4기 작전은 3월 14일 종료되었다.

제4기 작전이 종료되자 수도사단도 상급부대 지시에 의거 작전책임지역과 경비부대 및 경찰부대의 작전지휘권을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인계한 후에 다시 전선으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육군은 1952년 11월 25일 백야전전투사령부를 전주에 설치한 이래 12월 초순부터 그 이듬해 3월 14일까지 3개월 반에 걸쳐 호남지역 공비 토벌작전을 전개한 결과, 남부군을 비롯한 공비 주력을 대부분 격멸하고 후방지역은 평온을 유지하였다.

#### (5) 전과 및 피해<sup>18)</sup> - 제4기 전과 및 피해 미포함

##### 1) 전 과

- 사상: 7,737명
- 생포: 7,993명
- 귀순: 506명
- 각종화기: 1780정(문)
- 은거지 파괴: 482개소

##### 2) 피 해

- 전사: 213명
- 부상: 191명

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215쪽.

## 4. 작전교훈

### (1) 공비 토벌작전 시기에 있어서의 교훈

낙엽이 떨어지고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철에는 우선 시계가 좋아 공비들의 활동을 원거리에서 관측할 수 있다. 그리고 공중정찰이 매우 용이하다. 백선엽씨는 그의 회고록에서 백야전사작전의 성공요소중 “공비토벌작전시 낙엽이 지고 눈이 쌓인 겨울철이 최적기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남부군 주력을 격멸할 수 있었다”고 기술하였다.<sup>19)</sup> 한편 공비측에서도 많은 활동의 제한을 받았다. 특히 눈 쌓인 지역을 이동한다는 것은 이동 흔적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남부군(南部軍)』의 저자 이태(李泰)는 기술하였다. “혹한의 겨울에는 얼어 죽던가, 굶어 죽던가, 맞아죽지 않으면 다행스러웠다.”<sup>20)</sup> 공비는 세 번 죽는다고 한다. 즉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는다는 말인데 겨울철에는 1,000~2,000m의 고지대에서는 추위에 얼어 죽고 보급투쟁이 어려워 굶어 죽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백야전사 예하 3개 사단규모와 예비대병력, 경찰병력이 2~3중으로 포위하고 있고 공중정찰과 공중폭격까지 지원 가능한 환경이 되고 보니 공비들은 최악의 조건에서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또는 귀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비토벌작전시기는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는 겨울철이 최고라는 것이다.

19) 백선엽, 앞의 책, 230쪽.

20) 이태, 『남부군(하)』, 1988, 65쪽.

## (2) 공비토벌부대와 주민관계에 있어서의 교훈

공비도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만 살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락에 밤이면 내려와 온갖 식량과 가축을 약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야전전투사령부가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공비들은 가을추수가 끝난 후 그들의 수가 막강함을 앞세워 대낮에도 지서를 습격하고 군청소재지를 습격하여 주둔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들은 현물세 명목으로 쌀을 비롯한 각종 곡물을 거두어 부락민으로 하여금 은거지 부근까지 운반토록 하였으며 주변부락 청·장년이 여기에 동원되고 이들을 하산시키지 않고 공비화하여 이용하였다. 또한 가축과 피복 등을 약탈해 갔으며, 그것은 겨울동안 은거하면서 먹을 식량과 방한대책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러한 민폐를 끼치는 공비집단에게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더구나 공비에게 식량을 빼앗기고도 경찰로부터 부역자란 누명을 쓰고 산에 강제로 끌려간 소위 입산가족(入山家族)은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공비와 군·경 토벌부대의 틈바구니에서 양편의 보복이 두려웠고 춥고 배고픔 속에서 그리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재앙의 공포에서 해방되기 위해 하루빨리 전란이 종식되기만을 고대하는 것이 산간부락 사람들이 갖는 소망의 전부였다.<sup>21)</sup>

사실 지리산을 비롯한 덕유산, 백운산 등 백두대간의 끝자락에서 거주하는 산간주민들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조상 대대로 농사와 약초를 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밤에는 공비들에게 재산과 남편을 빼앗기고 낮에는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세상, 즉 밤에는 인민공화국, 낮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치안부재의 상황속에서 피해만 보는 순박한 주민들이었다.

그러나 백야전사는 작전 개시전부터 토벌부대가 민폐를 끼치는 일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백선엽 사령관은 토벌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당시 부통령이던

21) 이태, 앞의 책, 70쪽.

김성수(金性洙)씨로부터 한통의 친서를 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2)</sup>

“주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산간오지는 치안이 유지되지 않아 국민들이 공비에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경마저 민폐를 끼쳐 군의 위신도 손상되고 있습니다. 백장군이 정예 2개 사단을 지휘하여 공비를 소탕한다 하니 적이 안심이 되는 바이지만 부디 국민을 애호하여 민간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치안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는 1950. 10~1951. 3월까지 국군 제11사단이 지리산지역 공비소탕작전시 거창양민 학살사건 등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이와같이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작전개시 전후(前後)에 부통령과 상급부대로부터 작전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피해와 인권차원의 세심한 준수사항을 지시(별지#1 참조)하고 또한 시행함으로써 백야전사작전 관련 민원제기가 5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거의 없다. 백선엽 사령관은 당시 이런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sup>23)</sup>

“나는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함에 있어서 토벌작전 못지않게 민심을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부대에 작전기간 중 ① 절대로 부락근처에 숙영하지 말 것, ② 물 한모금도 그냥 얻어 마시지 말 것, ③ 식량은 여유있게 지급되니 남는 것은 주민들에게 분배해 줄 것, ④ 저항하는 자 이외에는 절대로 사격하지 말 것 등을 강력히 지시해 두었다.

작전지역 주민들은 공비들의 소위 ‘보급투쟁’의 대상이었고 아울러 군경은 공비에게 협력한 주민들에게 보복을 가해왔기 때문에 이들은 기회주의

22) 백선엽, 앞의 책, 232쪽.

23) 위의 책, 233쪽.

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작전은 민심을 얻어야 성공한다. 그런데 험난한 세파를 겪은 이들이 얻은 지혜는 강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나는 국군이 강하다는 것과 또한 국군이 그들을 아끼고 애호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했다.”

백야전사는 포로수용소에서 포로의 의식주에 관심을 갖고 조치하여 주었고 공비로부터 노획한 각종 무기를 주민들에게 전시함으로써 군의 토벌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어린이는 송정리에 백선육아원(白善育兒院. 당시 광산군 송정리,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설치하여 공비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였다.

백야전사작전은 상급부대지시와 백선엽 사령관의 작전지역 주변 부락주민들로부터 민심을 얻어야 작전이 성공한다는 작전개념하에 민폐를 근절하고 주민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공비와 주민을 분리시킴으로서 국군이 주민들의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받아 단기간내에 성공한 작전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

즉 주민을 보호해 주고 주민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때 공비소탕작전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 공비 소탕작전 방법면에서 교훈

백야전사는 대구의 육군본부로 가서 사령부편성을 완료하자마자 사령부는 대전을 거쳐 전주로 이동했다. 전주북중 교정에 일주일간 주둔하며 사령부가 최종적으로 위치할 남원에 진입 즉시 토벌작전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동부전선의 수도사단은 속초에서 해군 LST편으로 해로를 따라 여수에 상륙, 지리산으로 북상했다. 제8사단 역시 양구 북방 편치불에서 차량편으로 대전을 거쳐 남하, 지리산을 북쪽에서 포위할 수 있도록 전개하였다. 이렇게 군단규모의 사령부 창설과 최전방에

서 2개 사단 병력을 해상과 지상으로 철수시켜 토벌작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과 2주안에 끝난 것이다. 백선엽 장군은 “이 같은 모든 조치는 작전개시전까지 공비들의 정보망에 탐지되지 않도록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sup>24)</sup>고 회고하였다. 4,000여명의 공비들은<sup>25)</sup> 월동준비를 해놓고 최전방에서는 전투가 치열하니 강력한 전투부대의 토벌작전은 생각조차 못하다가 기습공격을 받아 대응조차 제대로 못하고 남부군의 주력이 초기작전에서 섬멸되고 지휘체계조차 무너져 버린 것이다. 또한 작전중에도 적의 집결지가 최초 정보판단과 상이할 경우에는 순발력 있게 작전계획을 변경, 새로 이동한 그들의 집결지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적의 주력을 격멸할 수 있었다. 즉 백야전사의 제2기 작전에서 수도사단 1개 연대는 목표를 덕유산 서쪽고지로 부여하였다가 덕유산으로 적의 이동이 포착되면서 즉각 목표를 덕유산으로 바꿔 공격함으로써 그곳에서 적의 주력을 발견하고 섬멸했던 예가 있었다. 이때 작전계획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던 작전참모 공국진 대령을 해임한 일이 있었다.<sup>26)</sup> 백선엽 사령관은 게릴라전은 정규전과 달리 고도의 임기응변과 융통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상황이 변하면 작전도 변해야 한다는 작전교훈을 남긴 것이다. “공비들은 박격포까지 쏘며 대항했고 사망에서 총성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주간에는 거의 정찰기를 타고 있었다. 부대와 공비의 움직임을 직접 내 눈으로 보며 사단장, 연대장들에게 작전을 지시했다. 부대들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순발력 있게 움직여 주어야만 했으므로 나로서는 예하 지휘관들에게 가장 많이 독려한 전투가 바로 이 작전이었다고 기억된다.”<sup>27)</sup>

24) 백선엽, 앞의 책, 1999, 231쪽.

25) 위의 책, 231쪽. 육군본부에서는 공비수를 3,800명으로 최초에 판단했으나 실제작전에서 사살, 생포, 귀순자가 16,000명에 이르렀다. 따라서 백야전사 작전후 잔여공비수(2,500여명)를 고려한다면 백야전사 작전개시전 공비수는 2만여 명으로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26) 위의 책, 238-239쪽.

27) 위의 책, 234쪽.

공비토벌작전에 있어서 기습과 순발력 있는 임기응변이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다.

## 5. 결 론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지리산-덕유산 일대를 비롯한 대전이남지역의 공비 토벌작전은 후방지역이 공비들의 발호(跋扈)로 병참선이 마비되고 치안부재의 상태에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2만여 명의 공비를 포위, 격멸하는 기습작전의 성공이었다. 작전기간도 아주 짧고 동계작전을 선택해 공비에게는 불리하고 토벌작전부대에게는 유리하였으며 민폐를 근절하고 주민들을 보호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 정보제공 등 많은 협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심리전을 강화하여 가급적 사살보다는 생포하거나 귀순 시킨다는 작전지침으로 1만여 명에 가까운 공비들을 생포하거나 귀순시켜 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또 백선엽 사령관은 작전기간중 약조건하의 기상에서 정찰기를 계속 타고 작전을 직접지휘하는 용맹성과 치밀함을 보여줌으로써 2개월(주작전기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남부군의 주력을 격멸시켜 재기 불능토록 만들었던 것이다.

백야전사 전투에서 얻은 교훈을 요약하면

- (1) 토벌작전 시기를 공비활동의 취약시기를 고려하여 동계로 선정하였다.
- (2) 기습적인 포위공격과 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순발력을 가지고 임기응변적인 조치를 신속히 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획득한 다음 작전을 전개한다.
- (3) 민폐를 근절하고 주민의 생명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소개(疏開) 가능한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하고 공비와 주민을 분리시킨 다음 주민의 협조를 받아 작전을 전개해야 한다.

백야전전투사령부의 후방지역 공비토벌작전은 막강한 세력의 공비집단 주력을 단기간에 대부분 섬멸함으로써 병참선을 확보하고 후방교란을 잠재운 성공적인 작전으로 차후 대게릴라 작전에 많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고 사려된다.

(원고투고일 : 2004. 10. 11, 심사완료일 : 2004. 11. 10)

주제어 : 백야전사, 남부군, 공비토벌작전, 주민보호, 등계작전

K C I

<별지 #1>

## 훈령 제1호

(백야전전투사령부 작전기본방침)

후첨한 훈령 제1호 사본은 1951년 11월 20일 백야전전투사령관인 백선엽 소장이 작전을 전개하기에 앞서 사령부 예하 전 장병에게 하달한 공비토벌 작전지침이다.

이 훈령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제1항은 “민폐를 근절하라”는 지시였다. 공비토벌부대는 절대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오히려 주민을 도와주고 주민을 보호해 줌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며 주민과 공비를 분리시켜 공비의 보급을 차단시키고 민·관·군·경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작전을 지원해 줄 때 공비 소탕작전은 성공한다는 내용이다.

자료: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86)」, 1990, 816-820쪽.

사본에 “육군야전전투사령부”로 기록된 것은 계획단계시 호칭한 것으로 보이며 그 직후 11월 하순부터 “백야전전투사령부”로 계속 호칭하였다.





특히各級指揮官은部下에對한匪戰術을教育하여効果的인匪戰을指導한다

三、對匪精神에對하여

治安攪亂과民心의動搖를策動하고軍民의離隔을策하는土匪는그들의目的을爲하여서는手段方法을가리지않고殺人放火掠奪破壞等殘虐行爲을恣行한다는점을銘心하고 其의對戡作戰의重要性和必要性을再認識하여만두이完全掃蕩하여야한다權固不動의信念을堅持한다 特別各級指揮官은部下에對한對匪精神을堅持시킨에있어이를再三戒諭할것이며 對戡間如何한策勵防諷가있을지다도能히이를克服하였다는確固한精神을培養하여야는一方剛膽壯氣를堅持하여有餘의美를가늘이最善을다한다

四、軍官民一致에對하여

對戡間軍政行政機關及民間團體의一致團結은作戰遂行上絕對必要한要素이다 作戰上住民의協力を要求할때는一境道에있어行政機關과의充分한折衝을維持한다 必要한情報의獲得을匪의對民衆組織破壞敵對的의途斷等도 軍官民의緊密한協助을維持하는것이可能하다는점을銘心한다

五、匪民分離工作에對하여





&lt;ABSTRACT&gt;

## The Operations of the General *Paik's* Field Combat Command and Its Lessons

Chung, Suk-kyun

The Operations of the General *Paik's* Field Combat Command to liquidate the Red Guerrillas are as follows. The operations were executed around *Jiri* Mountain in the second half of 1951. At that time, a strong communist guerrilla unit who called themselves the *Nambugun* (called Southern Army) had cut off the Lines of Communications in the rear area of Korea and were looting the people of their livestock and food. When the harassing tactics of the communists were on its height, the ROK Capital Division and the ROK 8th Infantry Division were pulled out of the frontline. Together with the divisions that were already employed in liquidating the communists, these three-division size and the National Police combat power were concentrated on the main forces of the enemy. The operations were executed for three months. Afterwards, the Red Guerrillas were dispersed. Their activities were also downsized and were mainly for survival.

The lessons that can be gotten from the successful operations of the General *Paik's* Field Combat Command is that by executing the operations in winter season, the Red Guerrillas had to face the bitter cold and had to operate in snowy regions. Therefore, their activities were limited much and they also suffered heavy casualties. Also, so that no harm went to the civilians in the region, the ROK Armed Forces offered protection and gave stability. By doing so, the ROK Armed Forces won over the trust of the ci-

vilians and were able to obtain valuable information and cooperation. With those help, when the Red Guerrillas got ready to pass the winter, the General *Paik's* Field Combat Command launched a surprise attack in *Jiri* Mountain. Due to the attack, the chain of command of the communists was paralyzed and the communists suffered heavy casualties. The intensification of the Psychological Warfare (PsyWar) played a great role as well. The Red Guerrillas who were facing extreme conditions underwent mental conflicts due to the PsyWar and lost their will to fight. Consequently, many of them defected to the ROK.

Even after half a century, the General *Paik's* Field Combat Command has left us many lessons that we still can utilize. It will be of a great help in the future if there are any operations to liquidate guerrillas. Therefore, with introducing the Mop-up Operations against the Red Guerrillas by the General *Paik's* Field Combat Command and by extracting lessons, I believe that it will be of great help in the execution of the operations in both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warfares.

Key Words : General *Paik's* Field Combat Command, *Nambugun*(Southern Army), Mop-up Operations against the Red Guerrillas, Civilian Protection, Winter Operations

КСІ